

# 올해 인제대 정시 경쟁률 3.28대 1

김용락 기자 | 승인 2019.01.06 17:12

정시 495명에 1천623명 지원

스포츠헬스케어, 13.11대 1

올해 인제대학교 정시모집의 최종 경쟁률은 3.28 대 1로 나타났다.

인제대학교는 2019학년도 정시모집에 495명 모집에 1천623명이 지원했다고 밝혔다.

지난해 최종 경쟁률(3.54 대 1)보다는 소폭 하락했다.

인제대는 올해 정시모집에서 가군 450명, 다군 45명을 모집했다.

이 중 가군에는 1천395명이 지원 3.1 대 1의 경쟁률을 보였고, 다군에는 228명이 지원 5.07 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.

가장 높은 경쟁률을 기록한 학과는 가군 일반학생전형 스포츠헬스케어학과로 9명 모집에 118명이 지원해 13.11 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.

이외에도 가군에서는 의예과가 29명 모집에 100명이 지원해 3.45 대 1, 작업치료 학과는 4명 정원에 29명이 몰려 7.25 대 1, 유아교육과는 4명 모집에 21명이 지원해 5.25 대 1의 경쟁률을 보였다.

다군에서는 임상병리학과가 5명 모집에 53명이 몰려 10.6 대 1, 실내건축학과가 6명 모집에 44명이 지원해 7.33 대 1로 경쟁했다.

저작권자 © 경남매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



김용락 기자